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I .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546호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안일자 : 2015년 6월 12일

라. 회부일자 : 2015년 6월 18일

II . 개요

-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일반회계의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액 1,833억 5,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63억 6천만원
이며,
 - 세출예산현액 5,024억 5,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22억 6,200만원
이고, 차인액 501억 9,2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89억 9,000만원
이며, 집행잔액은 312억 200만원임.

-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액 753억 5,900만원이 모두 수납되었으며,
 - 세출예산현액 452억 4,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2억 4,3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4년도 수입·지출액은 549억 4,226만원, 연도말 현재액은 2,657억 2,067만원임.
- 사회투자기금의 2014년도 수입·지출액은 △52억 1,671만원, 연도말 현재액은 327억 5,775만원임.

Ⅲ. 세입·세출 결산검토

1. 세입 결산

-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689억 6,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1,883억 5,500만원 대비 88.32%인 1,663억 6,000만원이 수납되었음.
- 주요 세입 현황은
 -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504억 9,200만원으로, 사용료·수수료·배당금·

공유재산임대료·사업수입·징수교부금·이자 수입 등이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8억 2,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민간
융자금회수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등임.
- 보조금은 총 308억 5,400만원으로, 국보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
계보조금 등임.
- 미수납액은 총 26억 500만원으로 결손처분 1,8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5억 8,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시·도비반환금, 그 외 수입 등임.

2. 세출 결산

가. 총 괄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729억 300만원으로, ‘문
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
대화’ 등에서 일부 증액되고, ‘서울 과학관 건립’,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등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5,024억
5,500만원임.

-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0.01%인 4,522억 6,2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9억 9,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6.2%에 해당하는 312억 2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음.
- 세출에 대한 항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33억 4,54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9억 3,421만원이며, 차인액 18억 1,118만원으로 집행잔액임.
 - 문화 및 관광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229억 9,31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04억 6,925만원이며, 차인액 25억 2,384만원으로 집행잔액임.
 - 사회복지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1,265억 472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130억 9,506만원이며, 차인액은 134억 977만원으로 집행잔액임.
 -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76억 7,431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73억 3,081만원이며, 차인액은 3억 4,350만원으로 집행잔액임.
 -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2,265억 1,315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942억 2,664만원이며, 차인액 322억 8,650만원은 이월액이 189억 9,029만원, 집행잔액이 132억 9,621만원임.
 -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120억 7,640만원에 대해 지출

액은 119억 6,329만원이며, 차인액 1억 1,310만원은 집행잔액임.

- 기타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9억 8,874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8억 8,390만원이며, 차인액 1억 483만원은 집행잔액임.
-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1,023억 5,9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음.

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예산 이용은 없음.
- 예산 전용은 총 15건 25억 3,6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예산 전용 현황과 사유>

(단위 : 백만원)

연번	예산 과 목			금 액		승 인 차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서울형 뉴딜일자리	201-01 사무관리비	1,820	90	-	'14-04-25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코자 했던 청년혁신사업 일부가 고용노동부 국고보조사업 으로 선정되어 시비 매칭분 확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금	893	-	90		
2	근로청년 공용공간 설치.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00	140	-	'14-09-15	근로청년공간 임대료 집행 잔액을 청년종합활동공간 공사비로 전용
	청년종합활동공간 설치.운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	-	140		

3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201-01 사무관리비	239	35	-	'14-11-05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가공모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분 확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금	1,759	-	35		
4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201-03 행사운영비	400	400	-	'14-07-23	사회적경제 국제협의체 창립총회 개최계획 변경
		307-05 민간위탁금	3,807	-	400		
5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늘다방' 쉼터 조성 (주민참여예산)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	99	-	'14-07-14	시설물 개선 및 집기 구매 등 사업내용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전용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	99		
6	"인왕 전통시장"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주민참여예산)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	30	-	'14-07-14	시설물 개선 및 집기 구매 등 사업내용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전용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	30		
7	청년종합활동공간 설치.운영	307-05 민간위탁금	356	22	-	'14-09-15	청년종합활동공간 설치운영이 변경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를 서울시에서 직접발주
		401-01 시설비	-	-	22		
8	청년종합활동공간 설치.운영	307-05 민간위탁금	334	284	-	'14-09-15	당초 시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공사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신축 사업으로 변경함에따라 자본형성적 경비로 전용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40	-	284		
9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201-01 사무관리비	204	150	-	'14-11-19	시본청 공공근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확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94	-	150		
10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897	301	-	'14-12-15	서울노동권익 센터 임대차계약이 서울시와 임대인 간의 계약으로 진행되어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201-01 사무관리비	-	-	301		

11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410	70	-	'14-05-07	아시아 청년 사회적경제 포럼행사를 언론사 공동주최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전용
		307-04 민간행사보조금	-	-	70		
12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307-02 민간경상보조금	3,000	220	-	'14-10-20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용품물 조성비 확보
		402-02 민간대행사업비	-	-	220		
13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169	148	-	'14-12-05	사회적경제 브랜드 전략 및 가이드라인 개발활용을 위해 자치단체지역특화사업 집행잔액 활용
		201-01 사무관리비	-	-	148		
14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307-05 민간위탁금	17,087	147	-	'14-10-20	서울창업허브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물 보수보강 및 설계공모비용 확보
		401-01 시설비	-	-	147		

다.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9건 32억 8,5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예산 변경사용 현황과 사유>

(단위 : 백만원)

연번	예산 과 목			금 액		승 인 자	사 유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 운영(의류봉제)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00	350		'14-10-23	성북제조업 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매입→임차)에 따른 집행잔액을 활용해 일부 권역별 산업생태계 조사비 지원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6		350		
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	1,000		'14-03-24	자치구 소상공인단체 육성지원 사업을 자치구 직접지원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 간접지원 하고자 예산과목 변경
		307-02 민간경상보조금			1,000		
3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1,433	133		'14-09-19	상인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상인과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사업수행
		307-02 민간경상보조금			133		
4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301-11 기타보상금	200	90		'14-12-29	전통시장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사업자와의 협력 추진으로 예산변경
		307-02 민간경상보조금			90		
5	패션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2,130	1,367		'14-10-15	패션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의 서울디자인재단 업무이관
		306-01 출연금			1,367		
6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	7		'14-11-25	국비추가내시(유기질비료지원)에 따른 시비분담분 확보
	유기질비료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10		7		
7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	8		'14-11-25	국비추가내시(유기질비료지원)에 따른 시비분담분 확보
	유기질비료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17		8		
8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40	130		'14-10-20	사회적경제 기업 통합 DB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S/W구매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적절통계목으로 변경
		207-02 전산개발비			130		
9	마을기업 육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73	200		'14-12-04	마을기업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을 활용해 판로지원을 위한 홍보, 브랜드개발, 공동매장 사업 수행
		307-05 민간위탁금	1,203		200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총 3건 127억 6,305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예비비 지출 현황과 사유>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비비 금액	예비비 사용 이유
계	12,763,052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700,000	○ 전통시장 전기안전 취약지점 점검 및 긴급 보수
전통시장 구조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100,000	○ 노후된 전통시장 43개소 긴급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과오납 반납	11,963,052	○ DMC 용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 사용

마. 다음연도 이월액

-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것으로 모두 93억 779만원이며 그 내역은

-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17억 7,379만원
- 서울 과학관 건립 55억 3,400만원
-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20억원

- 사고이월은 96억 8,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 서울과학관 건립 88억 6,700만원
-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1억 2,800만원

- 서울과학관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8,700만원
-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6억원

바. 집행잔액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312억 246만원(예산현액 대비 6.2%)이며, 사업별 주요 불용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22억 9,500만원
-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 운영(의류봉제) 2억 5,000만원
- 서울 과학관 건립 2억 5,000만원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물류센터 운영 3억 8,100만원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2억 1,800만원
-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3억 2,200만원
-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15억 1,800만원
- DMC 택지공급 8억 6,500만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4억 4,900만원
-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10억 9,200만원
- 마을기업 육성 14억 2,800만원 등임

3.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결산 총괄

-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일반회계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2,587억 1,394만원이었으나, 143억 9,064만원이 감액된 2,443억 2,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417억 7,186만원을 수납하였음(수납율 98.5%).

<2014년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계	258,714	244,323	241,719	2,605	98.9
일반회계 계	183,355	168,964	166,360	2,605	98.5
200 세외수입	152,318	137,107	134,503	2,605	98.1
210 경상적세외수입	150,492	124,620	124,458	162	99.9
211 재산임대수입	10,642	8,356	8,322	34	99.6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0,642	8,356	8,322	34	99.6
212 사용료수입	746	1,289	1,161	128	90.1
212-08 기타사용료	746	1,289	1,161	128	90.1
214 사업수입	139,091	114,962	114,962	-	100.0
214-06 매각사업수입	138,466	111,578	111,578	-	100.0
214-07 배당금수입	625	3,383	3,383	-	100.0
216 이자수입	13	14	14	-	100.0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3	13	13	-	100.0
216-03 기타이자수입	-	0.37	0.33	0.04	89.2
220 임시적세외수입	1,826	12,487	10,045	2,443	80.4
223 기타수입	1,820	11,903	9,949	1,954	83.6
223-02 변상금및위약금	6	1,577	9	1,569	0.6
223-03 과태료	151	72	55	17	76.4
223-04 과징금및이행강제금	-	74	73	1	98.6
223-07 시·도비반환금수입	495	2,225	1,892	333	85.0
223-09 그외수입	1,168	7,955	7,920	35	99.6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224 지난연도수입	6	584	96	488	16.4
	224-01 지난연도수입	6	584	96	488	16.4
	500 보조금	30,854	30,456	30,456	-	100.0
	510 국고보조금등	30,854	30,456	30,456	-	100.0
	511 국고보조금등	30,854	30,456	30,456	-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3	1,401	1,401	-	100.0
	710 보전수입등	183	1,401	1,401	-	100.0
	712 전년도이월금	13	1,231	1,231	-	10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3	1,231	1,231	-	100.0
	713 융자금원금수입	170	170	170	-	100.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70	170	170	-	100.0
도시개발특별회계 계		75,359	75,359	75,359	-	100.0
	500 보조금	32,296	32,296	32,296	-	100.0
	510 국고보조금등	32,296	32,296	32,296	-	100.0
	511 국고보조금등	32,296	32,296	32,296	-	100.0
	511-01 국고보조금	32,296	32,296	32,296	-	100.0
	600 지방채	43,063	43,063	43,063	-	100.0
	610 국내차입금	43,063	43,063	43,063	-	100.0
	611 차입금	43,063	43,063	43,063	-	100.0
	611-01 정부자금채	43,063	43,063	43,063	-	100.0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504억 1,800만원으로 사용료, 수수료, 배당금, 공유재산임대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 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8억 2,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등임.
- 보조금은 총 322억 9,600만원으로, 국보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임.
- 미수납액은 총 26억 500만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인 1,800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공유재산임대료·변상금 및 위약금 등 25억 8,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총괄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024억 5,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729억 300만원보다 295억 5,200만원(6.24%)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90.01%인 4,522억 6,2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9억 9,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6.2%에 해당하는 312억 200만원이 불용처리됨.
- 2014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과 같은 1,023억 5,900만원이며, 전액을 지출하였음.

나. 세입결산 검토의견

-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443억 2,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2,515억 1,400만원 대비 96.1%인 2,417억 1,9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음.
- 최근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세입결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3회계연도에는 DMC 용지 매각사업수입 223억 3,301만원의 이월로 수납율이 일시적으로 저조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약 98%이상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2014년 세입결산시에 경제진흥본부는 2008년과 2009년에 부과되었으나 2014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26건의 미납된 풍물시장 공유재산사용료 1,846만원을 최종적으로 결손처분하였음.
- 결손처분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 자영업자 영업부진 등의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으나 조세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규정에 따라 부과된 각종 사용료의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

<2010년 이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4년	258,714	258,714	244,323	241,719	2,605	18	2,586	98.9
2013년	251,538	251,538	285,030	261,814	23,216	0	23,216	91.9
2012년	235,779	235,779	190,366	187,526	2,840	0	2,840	98.5
2011년	65,059	65,059	68,940	68,469	471	0	471	99.3
2010년	101,359	101,359	113,987	111,289	2,698	0	2,698	97.6

- 당초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부족하게 발생한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사유는 농협 창동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의 사용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공유재산임대료의 감소, DMC사업용지 매각사업 수입의 감소, 과태료 징수 건수의 감소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 부족액 주요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공유재산임대료	10,642	8,356	△2,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와이트 외국인학교 임대료율 변경(1.5%→1.0%) 및 임대료 분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사용료 △1,516백만원(2,240→724) ○ 창동 중소기업전시장이 속해 있는 농협 창동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용계약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1년간의 건물 사용료를 편성하였으나, 1.24일자로 계약해지됨에 따라 해당기간 사용료만 수납됨 - 창동 중소기업전시장 임대료 △545백만원(593→48) ○ '15년도 SBA 부지 사용료 수입을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15년도로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산업진흥원 사옥부지 사용료 △279백만원(279→0)
매각사업수입	138,466	111,578	△26,8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C 사업용지 매각사업 수입에서 신규매각 예정필지(F1, F2) 공급변경계획 등으로 예산액 대비 부과액 감소
과태료	151	72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부거래법 위반 등 행정처분 과태료 징수 건수 감소

- 당초 예상보다 징수결정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발생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 과다액 주요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기타사용료	746	1,289	5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 방영 및 캐릭터 상품화 매출 증대로 원저작권 및 상품권 소유자인 서울시 수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꼬마버스 타요 애니메이션 사용료 280백만원(40→320)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임대료 수입을 공유재산임대료가 아닌 기타사용료로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폴리텍 서울강서대학 사용료 242백만원(0→242)
배당금수입	625	3,383	2,7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동 농수산물유통센터 이익금 재산정에 따른 5년간 추가 배당금 수입 발생 3,38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도 이익배당금 1,011백만원 - 5년간 배당금 추징 2,372백만원
변상금및위약금	6	1,577	1,5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동 농업농수산물유통센터 사용계약 해지('15.1월)에 따라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신규 부과 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기술교육원 교회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8,520천원 - 농협 창동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1,538,675천원
시·도비반환금수입	495	2,225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예산으로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2013년도 이전 자치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수입 발생
그외수입	1,168	7,955	6,7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신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690백만원(0→1,690) -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업무가 고유사무로 SBA에 이관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했던 임대보증금 수입 반납 1,077(0→1,077) - 그외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납금 등 신규 수입 발생
지난년도수입	6	584	5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안법 과태로 체납액만 편성하였으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DMC 관련 소송비용, 품물시장 점포 사용료 등에서 체납액 발생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759	1,230,513	1,217,7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70%는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직접지원(인건비 지원)에서 간접지원(사업비 지원)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선정 기업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예산편성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일자리 6,959천원 · 농업기술센터 국고보조금 잔액 5,800천원 - 징수결정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일자리 67,152천원 · 농업기술센터 국고보조금 잔액 8,013천원 ·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866,908천원 · 기타 288,488천원

- 이 밖에 당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나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발생 이자 반납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징수결정 되었음.

<미반영 세입예산의 징수 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과부족 상세사유
계	-	74.37	
기타이자수입	-	0.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결정 세부내역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등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발생 이자 반납금 ○ 사유 -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수입금으로 본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 통장이 없어 예산편성하지 않았으나, 그외수입으로 처리를 해야 할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 발생 이자 반납금을 착오로 기타이자수입으로 부과
과징금및이행강제금	-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결정 세부내역 - 농안법 위반 과징금 ○ 사유 - 농안법 위반 과징금은 당초 과태료 수입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실제 행정처분 과정에서는 과태료보다 강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음

- 복지분야 등 지속적인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에 세입의 확충은 여의치 않은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일정액의 수입이 발생하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료와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 회계연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인 세입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세출결산 검토의견

-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024억 5,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729억 300만원보다 295억 5,200만원(6.24%)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90.01%인 4,522억 6,2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9억 9,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6.2%에 해당하는 312억 200만원이 불용처리됨.
- 2014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과 같은 1,023억 5,900만원이며, 전액을 지출하였음.
- 2014년 세출예산은 전반적인 긴축재정 기조에서 경제진흥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약 3.37% 감소하였고, 지출액 역시 전년대비 약 5.62% 감소하였음.

<세출결산의 최근 3년간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4년	472,903	16,789	12,763	-	-	2,536	-	502,455	452,262	18,990	31,202 (6.2)
2013년	468,300	6,987	44,665	-	-	5,867	-	519,952	479,157	16,789	24,007 (4.6)
2012년	415,846	2,064	73,900	-	-	-	-	491,810	450,789	6,987	34,034 (6.9)

- 또한, 예산 확정 후 각종 사정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빈도가 감소하고 있고, 매년 추경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벽하지 않으나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지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한 차례의 감추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진흥본부 세출예산의 약 6.2%에 해당하는 312억원 가까이 불용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 기초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1) 이용, 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

-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장·관·항 사이의 상호 이용을 금하고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예산총칙에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를 비롯해 몇 가지 이용사유를 적시해 예산심의를 받고, 이를 근거로 예산이용을 시행하고 있음.

- 경제진흥본부의 경우 2014년에 단 한건의 예산이용도 발생시키지 않고 의회가 심의·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서울시가 예산총칙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이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에도 예산의 이용을 최대한 억제해 예산 운용의 민주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모두 15건 25억 3,6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청년종합활동공간 설치·운영’, ‘사회적경제인프라 조성’,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등임.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 전용의 경우 특히, 동일한 정책사업 내라 할지라도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그 필요성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추진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는 일회성 행사비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예산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여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용, 전용, 사업변경 등은 당초 의회의 예산심의 결

과와 달리 집행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생을 최소화해 예산편성과 의결, 집행권을 분리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다음연도 이월사업

- 2014년에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은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등 총 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93억 779만원임.
- 명시이월 사유는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의 경우 사업대상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되어 정밀시굴조사 시행(3월~6월)에 따라 설계 공모, 발주가 지연되어 공사비를 명시이월하였음
- 이 밖에 2014년에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모두 4개 사업에서 96억 8,200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사고이월액과 사유는 아래와 같음.

<사고이월 현황과 사유>

사업명	사고이월액	사유
서울 과학관 건립	88억 6700만원	지장물 발생, 현장여건과 설계도서간 상이로 검토 지연 등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6억원	12월 국비 공모 선정 및 교부로 예산집행기간 부족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1억 2,800만원	문화재 시굴조사 시행 등으로 공사 설계공모 지연
서울과학관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8,700만원	과학관 운영 핵심인력 참여토록 용역 준공기한을 '15.3월까지로 계약

- 지난 해와 비교하여 2014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사업의 사고이월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예산 편성 이후의 사업계획 변경을 비롯한 각종 사유에 따른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전절차 이행기간이나 공정률을 충분히 감안한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명시이월 등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3)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사업집행의 전단계에서 요구됨.
- 2013년까지 감소 추세이던 불용액이 2014년도에는 관련 예산 현액 대비 6.2%로 다시 증가하게 되었고,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서울시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312억원이라는 예산을 불용한 것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조치로 주의가 요구됨.

<최근 3년간 경제진흥본부 소관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예산현액(A)	491,811	519,952	502,455
집행잔액(B)	34,034	24,007	31,202
비율(B/A)	6.9	4.6	6.2

- 경제진흥본부 소관 사업 가운데 다음의 일부 사업들은 불용률이 15%를 초과하는 사업들로 상당수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임.

<2014년도 주요 불용 사업 및 사유>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한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발생 사유
1	희망경제위원회 운영	101	59	58.7	당초 추진 예정이었던 "산업 및 업종별 기초 수요조사(4천만원)" 및 "정책과제 평가(6백만원)" 미실시
2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827	128	15.5	보조사업자 선정방식 변경(위원회 심의·선정→공모) 함에 따라 예산 집행기간 부족
3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962	180	18.7	'14년도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광역경제권 정책이 폐지되어 신규사업 미선정
4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6,926	2,295	33.1	집행잔액 대부분은 종로주얼리센터 건립 예산으로 문화재시굴공사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어 준공이 어려운 재이월 공사비, 1센터 장비구매 우선 구매에 따라 자산취득비, 개관 지연으로 운영비가 미집행 되었음
5	도시형 제조업 인식 제고	194	41	21.0	도시형제조업 인식제고 관련 간담회 개최 횟수 축소, 일자리 연계 교육 인건비 절감 등
6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 운영(의류봉제)	850	250	29.4	사업계획 변경(매입→임차)되어 소요예산 축소됨
7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300	55	18.2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차액,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 등
8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5,424	827	15.2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상담사 급여인상을 하향 조정 및 시간외 근무 한도 축소, 출장여비·복리비 등 축소, 소상공인지원센터 개편(17개소→4개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 축소 등
9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	800	381	47.7	중기청에서 개발, 보급하는 통합물류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자체 고도화 예산 미집행
10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65	20	31.0	SSM 입점에 다른 사업조정 신청 건이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되어 조정회의 개최횟수가 감소 등
11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1,073	218	20.3	100억원 대출액에 대한 수수료 1,05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대출액이 78억원에 그쳐 미교부 잔액 발생 등
12	청년층 신용회복 및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	228	66	29.0	'13년까지 청년층 신용회복을 위해 지원되었던 희망론을 '14년 신용회복증인자의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위기탈출론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시행과정에서 우리은행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의견조율이 늦어져 사업 착수(8월) 지연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한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발생 사유
13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78	40	51.8	상당사례가 불충분하여 책자 미제작, 상가임대차 관련 용역을 중소기업 중앙회와 공동으로 진행(중소기업단체 협력 강화 예산 활용)해 미집행하였음
14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1,421	322	22.6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집행잔액으로 계획대비 저렴한 사무실 이전함에 따라 발생
15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3,735	1,518	40.7	현금지원 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계획 변경에 따라 미집행액 발생(△1,436백만원) - 고용계획 변경 : 169명 → 119명
16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운영	16	4	21.5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예산 집행후 잔액 - 상반기 선거일정에 따른 정기회의 미개최
17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306	63	20.7	서울국제금융센터 개발비용 및 순운영수익 검증 용역 및 투자유치 온라인 홍보마케팅 용역 낙찰차액 및 법률자문료 집행잔액
18	DMC 택지공급	1,345	865	64.4	DMC 랜드크 용지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로 상대방 보수료 미지급, 랜드마크 용지 등 공급계획 변경에 따라 감정평가 미실시되어 감정평가비용 미집행
19	DMC 입주기업 지원	203	31	15.2	민간위탁 계약심사 차액, 단지 내 입주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추진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20	토양개량제 공급	57	22	38.6	예측수요를 기준으로 중앙부처에서 보조금 예산편성(가내시)하였으나, 대도시 농가수가 적어 실수요액만 국비교부 후 예산 집행함
21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20	15	74.4	예측수요를 기준으로 중앙부처에서 보조금 예산편성(가내시)하였으나, 대도시 농가수가 적어 실수요액만 국비교부 후 예산 집행함
22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	0	25.3	예측수요를 기준으로 중앙부처에서 보조금 예산편성(가내시)하였으나, 대도시 농가수가 적어 실수요액만 국비교부 후 예산 집행함
23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	20	19	96.2	예측수요를 기준으로 중앙부처에서 보조금 예산편성(가내시)하였으나, 대도시 농가수가 적어 실수요액만 국비교부 후 예산 집행함
24	불법공산품 단속 강화	68	26	37.9	특사경법에 대부업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여 불법공산품 단속강화 사업에 통합하여 예산 편성 하였으나 법안 미통과로 특사경수사경비 미집행
25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77	13	16.6	집행잔액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실태 조사 대학생 모니터링단 실비보상금으로, '13년 대학생 모니터링단 운영 결과 모니터링단 자료 신뢰성이 낮아, '14년도에는 노동분야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해 실태조사 용역으로 같음하고 모니터링단 운영단을 축소 운영한 결과 집행잔액 발생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한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발생 사유
26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	50	23	46.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실·본부·국 및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노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사 컨설팅 비용으로 책정하였으나, 인사과의 노무사 채용으로 노무업무 자문비용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임
27	서울형 뉴딜일자리	19,995	3,591	18.0	① 취약계층을 우대하기 위한 엄격한 사업 참여 배제 조건(재산가액 313백만원 이하 등)으로 인해 참여자가 당초 계획인원에 미달되어 집행 잔액 발생 ※ 자격미달로 인해 계획인원에 미달된 사업 (총 27개 사업 중 7개 사업, 25.9%) ② 세부 사업(총 27개 사업) 별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인해 집행 잔액 추가 발생 ※ 중도탈락자(2123명 중 442명, 20.8%)
28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1,991	3,588	16.3	취업률 저조한 학과의 폐지·조정 및 우선선발 대상자 계획대비 실제 선발인원 감소
29	노동권익 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285	46	16.1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일('14.6.4) 이후부터 사업추진하여 집행잔액 발생
30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897	449	50.0	연말 위수탁 협약체결('14.12.8)로 민간위탁금 579백만원 중 148백만원 지출하고 인건비 및 사업비 미지출
31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8	6	80.1	참여노사간 상정안거 부재로 본회의 미개최
32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96	47	49.4	'14년 3월 고용노동부 국비 감액 (48백만원→24백만원)과 노사정안전위원회의 미구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33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4,172	1,092	26.2	혁신형 사회적기업 선정시 엄격한 기준적용으로 선정기업수 감소,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신청 및 선정
34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1,573	245	15.6	협동조합상담센터 운영 및 지역단위 협동조합 공모사업 집행잔액
35	마을기업 육성	4,305	1,428	33.2	서울시 심사 및 행정안전부 지정 심사시 사업성 위주로 지속가능성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비 적게 선정됨
36	기본경비(사회적경제과)	44	10	23.4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 인쇄비, 급량비 등에서 집행잔액 발생
37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3,345	1,411	42.2	시 분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외 자치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함께 편성하였으나, 자치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반납기준에 따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처리
38	찾아가는 희망취업 멘토스쿨	147	23	15.3	계약심사 차액(13,000천원 절감) 및 낙찰차액(9,500천원)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한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발생 사유
39	기본경비(창업지원과)	43	8	19.1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 인쇄비, 급량비 등에서 집행잔액 발생
4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5	1	33.2	후계농업경영인 교육과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정기관에서 추진) 중 국내연수과정(신청자 2명, 화훼분야) 중도폐지로 교육비가 낮은 경영교육과정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져 집행잔액 발생 - 경영교육(350천원/인) : 9명 - 국내연수(1,000천원/인) : 0명
41	선도농가경영 육성	62	10	15.9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용역계약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 사업별 검토

①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

- 서울시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4월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일차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내에 강남권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연면적 3,372 m²)를 총 사업비 42억 6천 7백만원(사업비 4,267백만원, 국비:시비 =6:4)을 투입해 준공하였으며, (사)서울지역수퍼협동조합협회가 2013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위탁 운영중임.
-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기업 중심의 유통시장 쏠림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화된 물류시스템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지역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영안정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당초

기대하였음.

- 하지만, 설립이후 수발주 시스템 개선, 매대 개선, 각종 기자재 확보 등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주류면허 취득 등 운영자의 요청에 따른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 되지 못하는 상황임.
- 2014년에는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 증대를 요구하는 위탁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자체 물류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당초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하지만, 예산확정 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기청이 자체 개발해 전국 물류센터에 공통적으로 보급하는 통합물류시스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당초 예산의 47.7%(3억 8,141만원)를 불용처리하였음.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800,000	800,000	418,590	381,410

-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의 물류시스템 도입을 통해 향후 있을지 모르
타 지방 물류센터와의 교류에 대비하면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현재의 중소유통 물류센터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각종 시설 개선과 지원을 요구하고 시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예산편성 등의 과정이 다소 시급하게 추진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함.
- 아울러,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 효과가 상당기간 나타나지 않는 물류센터 운영과 관련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용자 조사 등을 통해 활성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 홍보 확대와 각종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중소 유통업체 지원을 위한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요구됨.
- 타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물류센터가 사업자들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시설운영과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이 물류센터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②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 본 사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투자에 대한 보조금 및 현금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 및 국내투자유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지난 2012년 솔베이사 R&D 센터 신축을 비롯한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시는 최근 3년 동안 약 47억원의 지원을 통해 400명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예산현액	집행	이월	집행잔액	일자리 창출실적
2012년	1,598,800	1,598,800	996,550	480,000	122,250	108명
2013년	374,800	851,200	841,368	-	9,832	68명
2014년	3,734,700	3,734,700	2,216,341	-	1,518,359	311명

- 2014년에는 당초 독일 지멘스 에너지솔루션사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계획 등에 따라 37억 3,4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금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계획이 변경(169명 → 119명)됨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축소하여 최종적으로 당초 예산의 40.7%(15억 1,836만원)을 불용하였음.

- 대상 기업의 고용계획 변경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지원 사업의 특성상 사전에 시와 해당기업 사이에 충분한 교감과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고용계획변경이나 이에 따른 상당규모의 예산 불용은 이해하기 쉽지 않음.
- 특히, 매년 외국 기업과의 사전교류와 고용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도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이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외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라는 사업의 특성과 이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부정적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③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 서울산업 발전의 필수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은 4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민간위탁 중임.

<기술교육원 민간위탁 현황>(15년 6월 기준)

구 분		동 부 (서울종합)	중 부 (한 남)	북 부 (상 계)	남 부 (엘 림)
위 치		강동구 고덕로 183	용산구 한남대로 136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81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규모	대지(m ²)	23,153	5,521	10,486	58,523
	건물(m ²)	11,748 (3개동)	6,918 (4개동)	12,854 (4개동)	24,185 (11개동)
위탁운영 법 인		(학교법인) 경북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재단법인) 한국능력개발원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현재위탁기간		'14.3.1 ~ '16.2.29 (2년)	'15.3.1 ~ '17.2.28 (2년)	'13.3.1 ~ '16.2.29 (3년)	'14.3.1 ~ '16.2.29 (2년)
'15훈련계획인원 (5,249명)		24개 학과 1,436명	23개 학과 1,360명	29개 학과 1,613명	16개 학과 840명
'15년 예산		4,967백만원	3,580백만원	6,168백만원	5,973백만원

○ 기술교육원에 대한 민간위탁비용 중 직업훈련사업비는 훈련대상인원에 비례하여 매달 교부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는데, 2014년에 우선선발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였고, 최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지 않아 취업률이 저조한 학과를 폐지·조정하면서 훈련인원이 감소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35억 8800만원이 미집행되었음.

- 폐지되거나 축소조정된 학과는 건물보수, 조경관리, 조리, 자산관리사, 화훼장식, 항공여행관리, 컨벤션기획사, 관광통역안내사,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도배 등임

<최근 3년간 훈련실적>

구 분	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계	15,649	5,337	5,650	4,662
정규과정	10,730	3,469	3,582	3,679
단기과정	4,919	1,868	2,068	983

- 기술교육원의 경우 종전부터 4개의 교육원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의 개설, 사설 직업훈련기관에 비하여 낮은 교육 수준 등 실질적인 직업훈련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SBA와 신용보증재단 등 창업관련 경제진흥본부 사업이 기술교육원과 연계되도록 할 것
- 기술교육원 상담인력에 대한 배치 강구하여 취업 및 인생상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 커리큘럼에 인문학강좌 강화 등 인성교육 및 자존감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원별 특화된 프로그램 필요

- 따라서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전에 산업현장에 수요를 예측하고 지속적으로 학과와 교육내용에 반영하여 기술교육원에 대한 평가와 교육훈련대상자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여야 함.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공공서비스 분야에 필요한 일자리 발굴로 시민 생활에는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일 경험 및 직업능력을 배양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진입을 목적으로 함.
- 본 사업은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인

서울시민이며, 신청인 및 배우자 및 직계 준비속의 재산이 3억 1,3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과 달리 복지차원에서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본 사업의 참여를 통하여 경험과 직업능력의 배양으로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진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점에서 재산액 관련 기준이 높은 편임.
 - 재산액의 기준은 서울 가구당 부동산 평가액임(통계청, '13년 가계금융 복지 조사)
- 신청인원 대비 선발인원의 비율이 2014년에는 2.29:1인데 2013년의 1.56:1보다 증가한 것으로 뉴딜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반면에 사후에 실시하는 성과분석(참여자 만족도) 결과는 2014년도의 경우 57.8%에 해당하여 2013년도의 62.4%보다 낮아졌음을 알 수 있음.

<뉴딜일자리 사업 관련 현황>

연도	사업명	계획 인원	신청 인원	선발 인원	사업비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성과분석 (참여자 만족도)
2013년	29개 사업	4,002	6,380	4,079	22,684	22,684	62.4%
2014년	27개 사업	2,047	4,875	2,123	19,995	16,404	57.8%

- 뉴딜일자리 사업은 민·관 사업선정위원회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전환·폐지 등 담당하고 있는데, 참여자의 만족도, 민간분야로의 취업률 등을 충분히 고려한 운영을 통하여 수요자 요구와의 불일치로 인한 중도탈락으

로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2014년 뉴딜일자리 사업 중도탈락자 현황>

계 획 인 원	선 발 인 원	중도포기인원												
		총 계	민간일자리 연계											개 인 사 유
			소 계	일 반 취 업	채 용 m o u 체 기 취	뉴 딜 사 업 관 련 취 업	여 업	공 공 기 취	공 공 관 업	일 용 상 업	뉴 딜 사 업 관 련 취 업	여 업	협 동 조 성 설 립	사 회 적 기 업 설 립
2,047	2,123	442	168	82	10	40	20	7	5	-	2	2	274	

⑤ 주민참여예산 사업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2013년에 도입함. 금년 경제진흥본부는 모두 7개 사업에 10억 2,700만원의 예산을 주민참여 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사업이 선정되면 서울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혹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교부하고 자치구에서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구조임. 경제진흥본부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6개는 모두 90%이상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지역사회 네트워크형 공정무역 매장 설립 사업은 당초 건립예정지에 고

정 구조물 설치가 여의치 않아 건립예정지의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주민참여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지역사회 네트워크형 공정무역 매장 설립	250	250	-	250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하늘다방 쉼터'조성	100	100	90	10	90
침체된 상권 살리기 맛의 거리 한마당	30	30	30	0	100
“인왕 전통시장”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30	30	30	0	100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 조성	300	300	271	29	90.3
지역 어르신을 위한 텃밭조성	17	17	17	0	100
도심속 농업체험 학습장 조성	300	300	299.6	0.4	98.7

- 다만, 7개의 주민참여 사업이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농업 등의 분야의 사업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추진보다 단년도 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와 성과가 검증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로 그칠 위험성이 있음.

-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선정과정에서부터 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며,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요구와 더불어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 또한 예산의 낭비 혹은 예산의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집행과정과 정산에 대하여도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⑥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 사업

- 서울시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활성화에 관한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음.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3년					2014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다음 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다음 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	4,220	3,535	83.8	-	684	-	-		-	-
마을기업 육성	-	-		-	-	4,305	2,877	66.8	-	1,427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11,458	9,048,	79.0	-	2,409	8,945	8,381	93.7	-	564
서울형	1,957	1,938	99.0	-	19	-	-		-	-

사회적기업 지원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 조직 맞춤형 지원	4,041	2,554	63.2	-	1,486	4,171	3,079	73.8	-	1,092
지역형 마을기업 육성	1,595	1,227	76.9	-	368	-	-	-	-	-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10,433	9,208,	88.3	-	1,224	11,169	10,063	90.1	-	1,105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1,560	892	57.2	109	558	1,573	1,327	84.4	-	245
합계	38,320	31,454	82.1	109	6,756	33,554	27,698	82.5	-	5,856

- 사회적경제주체들은 일반기업들과 비교하면 가격경쟁력 등에서 취약한 점이 많고 아직 사회적경제주체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사회적경제주체의 발굴과 육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아직 사회적경제에 친화적인 환경의 미흡과 사회적경제주체의 자생력 부족으로 당장 사회적경제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으며, 서울시의 현실에 부합하는 사회적경제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사회적경제과의 예산집행률은 '13년 82.1%, '14년 82.5%로 경제진흥본부 전체의 예산집행률('13년 92.2%, '14년 90%)과 비교가 되지만 사회적경제사업이 가지는 어려움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됨.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중 특히 사회적경제주체의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편임.
- 2014회계년도에는 혁신형사회적기업 선정사업, 마을기업의 육성사업이 엄격한 심사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적은 수의 사업자가 선정되어 예산의 불용율이 높아지게 되었음.
 - 혁신형 사회적기업 선정사업은 당초 25개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18개가 선정되어 예산 18억 중 7억 2,300만원이 미집행되었음(불용률 40.2%)
 - 마을기업의 육성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비 지원은 35에서 25개, 공간 지원 25개에서 12개만 사업자가 선정되어 예산 28억 7,300만원 중 13억 500만원이 미집행되었음(불용률 45.4%)
- 비록 사업성 위주의 엄격한 심사에 따른 결과라고 하지만 예산편성에 앞서 사전의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앞으로도 동일한 내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사업대상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파악과 잠재적 사업대상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한 적극적인 방안이 요구됨.

⑦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운영

- 서울시는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관계 전문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서울노동권익센터 현황>

시설명	서울노동권익센터
위탁체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재지	종로구 울곡로 56 운현하늘빌딩 10층
인력규모	12명(센터장 1, 팀장 3, 팀원 8)
면적	264.46㎡ (전용 178.5㎡, 공용 85.96㎡)
위탁기간	2014.12.8. ~2017.12.7 (3년)
위탁내용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및 그 부대시설

-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설치·운영은 2013.10.10. 경제분야 현안에 대한 시장보고서에 시장의 센터 설립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14년 2월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4년 4월에는 민간위탁 동의안도 시의회에서 처리되어 수탁기관의 선정만을 남겨두고 있었음,
- 하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현재 4개구(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에서 운영 중인 노동복지센터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어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기본방

향에 대한 논란으로 이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14. 12. 8. 민간위탁협약이 체결되어 결과적으로 민간위탁 예산 5억 9,700만원 중 75%인 4억 4,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설립과 민간위탁의 추진은 당초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시작되어, 사전에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 향후에는 비록 시장의 지시사항 등으로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계획의 수립당시부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중간에 혼선이 없도록 하며 또한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IV.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2014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A+B)
		계(B) = C - D	조성액(C)	지출액(D)	
계	248,752,882	60,158,973	327,825,800	278,100,251	298,478,430
중소기업육성기금	210,778,417	54,942,261	324,282,495	269,340,234	265,720,677
사회투자기금	37,974,465	△5,216,712	3,543,305	8,760,017	32,757,753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1965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이하 “재투”)의 차입금, 융자회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지원,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 지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가. 기금 조성 현황

- 2014년도 말 기준으로 기금의 조성은 총 8,193억 7,400만원으로 재투자입금 4,590억원, 기금 전입금 4,296억원, 운용 손실은 692억 2,600만원임.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기금 전입금 (일반회계 출연금)	재투자입금	운용 수익
819,374 (100.0%)	429,600 (52.4%)	459,000 (56.0%)	-69,226 (-8.4%)

나. 기금 운용 현황

- 2014년도 말 현재 기금의 운용 총액은 8,193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9,650억 1,100만원 대비 1,456억 3,700만원(15.09%) 감소하였는바, 이는 재투자기금 건전화에 따른 차입금 상황이 주요한 사유임.
 - 이 중 대출자금으로 은행에 대하된 자금은 5,332억 2,600만원으로, 경영안정자금 계정이 532억 3,300만원, 시설자금 계정이 4,800억 3,300만원임.
 - 대출준비자금으로 관리하는 미대하자금은 265억 7,200만원으로 시금고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고 있음.

- 자본지출 203억 8,800만원은 서울인쇄센터 건물 임차보증금 16억 8,800만원과 2개 투자펀드 출자금 187억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계		819,374	
대하자금	소 계	533,266	
	경영안정자금	53,233	
	시 설 자 금	480,033	
미 대 하 자 금		265,720	정기예금
자 본 지 출		1,688 17,500 1,200	- 인쇄센터 임차보증금(2002.7월) - 바이오펀드 출자 : 25억('10년), 65억('12년), 65억('13년), 20억('14년) - 녹색펀드 출자: 4억('13년), 8억('14년)

2.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 2014년도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각각 5,350억 600만원임.
 - 수입액은 출연금 250억원, 융자금(원리금) 회수 수입, 2,928억 3,106만원, 예치금 회수 2,107억 7,841만원, 이자수입 64억 5,143만원임.
 - 지출액은 고유사업 목적비 453억 6,287만원, 융자금 700억원, 기본

경비 9억 3,882만원, 예치금 2,657억 2,067만원, 원리금 상환
1,530억 3,859만원임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출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지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본 경비	예치금	원리금상 환
535,060,911	25,000,000	292,831,063	210,778,416	6,451,431	535,060,911	45,362,817	70,000,000	938,824	265,720,677	153,038,440

3. 재산 및 손익 현황

- 2014년말 기금의 총재산 8,193억 7,400만원의 조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1. 유동자산	210,778	265,720
현금과 예금	210,778	265,720
2. 투자와 기타자산	753,178	553,654
융자금	735,590	533,266
기타자산 (인쇄센타임차보증금+바이오펀드)	17,588	20,388

자 산 합 계	963,956	819,374
1. 부 채	606,000	459,000
차입금(시재정투융자기금)	606,000	459,000
2. 순자산(자산총계-부채)	357,956	360,374
부채·순자산 합계	963,956	819,374

- 전체적으로 유동자산은 현금과 예금의 증가로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융자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해 투자와 기타자산의 규모는 5,536억 5,400만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 부채는 매년 재투 차입금 상황이 지속되면서 2014년에도 4,590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2014년도 기금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비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39억 2,2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당기 순이익의 증감은 전년대비 91.37%임.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3년도 (A)	2014년도 (B)	증 감	
			금 액 (B-A)	비 율(%) (B-A)/A
1. 이자수익	32,602	26,958	△5,644	△17.31
융자금이자	27,699	20,507	△7,192	△25.96
예치금이자	4,903	6,451	1,548	31.57
미수수익	16,000	25,000	9,000	56.25

2. 기타수입(출연금)	48,602	51,958	3,356	6.91
수 익 합 계	43,538	42,563	△975	△2.24
1. 사 업 비	43,422	42,445	△977	△2.25
이차보전금지급	116	118	2	1.72
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8,534	6,038	△2,496	△29.25
2. 차입금이자	8,534	6,038	△2,496	△29.25
시재투자입금	-	-	-	-
정부차입금	-	-	-	-
미지급비용(차입금)	970	939	△31	△3.20
3. 기금관리비	970	939	△31	△3.20
위탁수수료 등	-	-	-	-
기타비용	53,042	49,540	△3,502	△6.60
비 용 합 계	△4,440	2,418	6,858	154.46
당 기 순 이 익	△39,222	△3,386	35,836	△91.37

- 융자금 및 예치금 이자수익, 미수수익 등으로 269억 5,8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425억 6,300만원, 재투 차입금 이자 등 60억 3,800만원, 위탁수수료 등 기금관리비 9억 3,900만원 등의 비용으로 495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음.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기금운용 성과분석

- 2014년도 중소기업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1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단위 : 개, 억원)

자금구분		계획	지원실적		달성율 (%)
			업체수	금액	
합계		10,200	37,519	10,741	105.3
중소기업육성기금		1,200	1,125	765	63.7
시설비	일반시설비	800	132	553	69.1
재해영세	재해중소기업 지원	200	0	0	0
	영세자영업 지원	200	993	212	105.9
은행협력자금		9,000	36,394	9,976	110.9
일반자금	소계	8,930	36,348	9,947	111.4
	경제활성화자금	7,630	30,342	8,554	112.1
	창업기업자금	1,200	5,909	1,302	108.5
	일자리창출우수기업	100	97	91	91.4
특별자금	소계	70	46	29	41.5
	사회적기업	10	13	4	44.0
	여성고용우수기업	20	14	20	100.0
	국제업무지구 영세상가	20	19	5	23.2
	개성공단 입주기업	20	0	0	0

-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1조 2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변동에 따라 자금 수요가 증가해 경제 활성화 자금 지원이 다소 증가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초과하여 1조 741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조정하였음.
- 2014년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765억원, 은행 협력자금 9,976억원 등 총 1조 741억원(37,519개 업체)을 지원하여 당초 계획대비 105.3%를 달성하였음.
- 주요 사업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 경제활성화자금 지원(8,554억원)
 - 창업자금 지원(1,302억원)
 - 일반 시설비(553억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91억원)
- 이 밖에 사회적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국제업무지구 영세상가 지원 등에도 특별자금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데 기여하였음.
-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국내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자금을 확대하여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 시정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사업 지원,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나. 수입·지출 부문

(1) 수입 결산

- 2014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5,350억 6,100만원으로, 당초 운용계획(5,322억 5,700만원)보다 28억 400만원 증가하였음.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수납액
	당초(a)	변경(b)	증 감(b-a)	
합 계	532,257	572,920	40,663	535,061
• 융자금 원금 수입	308,793	308,793	-	272,324
- 경영안정자금	-	-	-	38,546
- 시설자금	-	-	-	233,778
• 융자금 이자 수입	25,849	25,849	-	20,507
• 기금 전입금	25,000	25,000	-	25,000
• 공공예금 이자	2,500	2,500	-	6,451
• 예치금 회수 수입	170,115	210,778	40,663	210,778
• 차입금	-	-	-	-
- 재투 차입금	-	-	-	-

- 수입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예치금 회수 수입이 당초보다 406억 6,300만원 증가되었기 때문임.
- 예치금 회수 수입의 증가는 2013년도에 당초 계획보다 기금운영실적이 낮아 여유자금의 발생으로 인한 것임.

(2) 지출 결산

- 2014년도 지출액은 5,350억 6,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322억 5,700만원 보다 0.52% 증액 지출하였음.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출 결산>

(단위 : 백만 원)

과 목	예산액			지출액(c)	집행 잔액 (b-c)
	당초(a)	변경(b)	증 감(b-a)		
합 계	532,257	572,920	40,663	535,061	37,859
• 민간 융자금	200,000	120,000	△80,000	70,000	50,000
- 재해영세자금	40,000	40,000		20,000	20,000
- 시설자금	160,000	80,000	△80,000	50,000	30,000
• 차입금 원리금 상환	153,060	153,060		153,039	21
- 원금 상환	147,000	147,000		147,000	-
- 이자 상환	6,060	6,060		6,039	21
• 기타사업비	51,550	51,550		45,245	6,305
- 은행이차보전금	45,750	45,750		42,445	3,305
- 투자펀드 출자	5,800	5,800		2,800	3,000
• 기금관리비	1,000	1,000		939	61

• 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132	132		118	14
• 예치금(예비비)	126,515	247,178	120,663	265,720	△18,542

- 당초보다 지출 예산이 증가한 것은 예치금의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13년의 기금운영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의 증가를 고려한 것임
 - 시설자금이 당초 계획인 160억원에서 80억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50억원을 지출하였음
 - 융자금 원금 수입증가로 인한 예치금은 2,657억 2,0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392억 500만원 대폭 증가하였음.
- 한편, 시설자금의 경우 기금운영 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1,6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00억원이 불용되었음. 시설자금의 불용은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설비투자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시중의 다른 중소기업시설자금보다 금리가 높아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임.¹⁾
- 따라서 향후 시설자금에 대한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타 중소기업시설자금과 비교하여 금리를 적성수준으로 인하하고 시설자금에 대한 새로운 수요처 발굴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1)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시설자금의 금리는 연 4%이며, 다른 중소기업시설자금의 금리는 2.5%~3.7%에 해당함.

다. 기금의 안정성 확보 방안

- 지속적인 엔화약세와 원화 환율증가, 국제유가의 불안정성 증대와 같은 국제 경제여건 악화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내수 불황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특히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은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경기회복 기초 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금융지원과 경제적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회안전망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경기 침체에 따른 지원대상의 증가, 차입금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 등으로 2006년 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후 2011년, 2012년에 기금의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다 2014년에 흑자가 되었으나 변동성이 큰 국내외 경기변동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기금 안정성 강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2014년의 당기순이익의 발생한 주된 이유가 출연금의 증액이며, 연도 별로 보면 2012년 120억원, 2013년 160억원, 2014년 250억원으로 증가되었음

<연도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익·비용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익	313	330	472	611	753	665	545	578	527	497	519
비 용	220	306	492	661	863	862	813	903	919	530	495
당기순 이익	93	24	△20	△50	△109	△197	△268	△325	△392	△33	24

- 향후 은행협력자금을 기금으로 운용할 경우,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인해 기금운용의 건전성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어려운 시의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이 발생할 때마다 기금 적립금 확대를 위한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 금융기관 출연금 유치, 중앙정부 출연 요청을 비롯해 기금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임.
- 아울러, 시중은행의 협력자금 대출이자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 기금의 안정성은 물론이고 주요 소비층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연도별 은행협력자금 지원 실적 및 이차보전금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계)				이차보전금 (해당연도분)
	총규모(a)	기금	은행협력자금(b)	비율(b/a)	
2001	4,375	3,992	383	8.8%	7
2002	3,731	2,838	893	23.9%	24
2003	5,197	3,084	2,113	40.7%	35
2004	6,553	3,553	3,000	45.8%	75
2005	9,480	6,510	2,970	31.3%	130
2006	7,894	4,720	3,174	40.2%	142
2007	8,804	5,783	3,021	34.3%	137
2008	12,416	6,016	6,400	51.5%	151
2009	20,219	5,947	14,272	70.6%	316
2010	16,404	2,176	14,228	86.8%	339
2011	12,964	2,164	10,800	83.3%	448
2012	11,135	2,502	8,633	77.53%	560
2013	12,303	1,580	10,723	87.16%	434
2014	10,741	765	9,976	92.9%	424

-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체재원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은행협력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국내외 경제 환경변화와 자금의 지원효과, 운용여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한 자금지원 규모와 배분기준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효과가 높은 전략적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함.

V. 사회투자기금 결산

1. 결산 개요

- 사회투자기금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원마련을 목적으로 2012년 신규로 설치되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수입,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2014년도말 조성액 327억 5,775만원은 시금고에 전액 예치되어 있음.

<2014년도 사회투자기금 조성내역>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사회투자기금	37,974,465	△ 5,216,712	3,543,305	8,760,017	32,757,753

2. 수입·지출 현황

- 2014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수입·지출액은 415억 1,777만원임.
 - 실제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이 94억 4,58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예치금 회수로 인한 보전수

입 등이 405억 7,196만원임.

- 지출액은 민간융자금·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운영에 따른 사업비 75억 730만원, 재무활동 327억 5,775만원, 기금관리비 12억 5,271만원임.

<사회투자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구분	수입계획현액	실제수납액	구분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합계	41,082,362	41,517,770	합계	41,082,362	41,517,770
1. 세외수입	607,897	945,805	1. 사업비	18,550,000	7,507,300
경상적세외수입	607,897	945,805	민간융자금	18,500,000	7,487,500
이자수입	607,897	945,805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운영	50,000	19,800
공공예금이자수입	454,897	898,803	2. 재무활동	21,106,606	32,757,753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53,000	46,746	내부거래	-	-
기타이자수입	-	256	예수금원금상환	-	-
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474,465	40,571,965	예수금이자상환	-	-
보전수입등	40,474,465	40,571,965	보전지출	21,106,606	32,757,753
융자금원금수입	2,500,000	2,597,500	여유자금 예치	21,106,606	32,757,753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2,500,000	2,597,500	3. 기금관리비	1,425,756	1,252,717
예치금회수	37,974,465	37,974,465	기금관리비	1,425,756	1,252,717
예치금회수	37,974,465	37,974,465	위탁수수료	1,425,756	1,252,717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수입·지출 부문

- 2014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수입·지출액은 415억 1,777만원임.
- 실제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이 9억 4,58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예치금 회수로 인한 보전수입 등이 405억 7,196만원임.
- 지출액은 민간융자금·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운영에 따른 사업비 75억 730만원, 재무활동 327억 5,775만원, 기금관리비 12억 5,271만원 임. 사업비 지출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사회투자기금 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집행액
합계		7,507
사회적기업 융자	액투스협동조합(46), 한국IT개발자협동조합(44.5), (주)상상우리(13), (주)에코그린(7.2) - 기업별 민간기금 매칭(1.75억원) 융자 추가 ※ 지원기관연계 민간기금(5건 6.2억원) 융자 별도	175
중간지원 기관협력 사업융자	(사)루트임팩트(3.5억)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인턴십, 창업 등 지원	2,800
	카셰어링쏘카(15.1억) : 나눔카 사업	
	동작신협(5억) : 사회적경제 조직 융자	
	산나는 조합(2억) : 사회적경제 조직 융자	
	논골신협(2억) : 사회적경제 조직 융자	

	서대문 사람숲(0.4억) : 서대문 지역 협동조합 등 용자	
소셜 하우징 용자	원룸형 소셜하우징 주택 건설 본사업(건설) : 아이부키 2건 21.5억, 일촌나눔하우징(주) 8.17억 시범사업(임대) : 함께주택협동조합 5.45억,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5억	4,012
소셜임팩트 본드 용자	※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	-
사회적 프로젝트 용자	(주)뉴튼프로퍼티(2.5억) : 1인가구 임차인 중심의 근린복합 공유주택 (주)공무점(2.5억) : 소상공인 공유 임대공간 마련 '어찌다가게@망월'	500
사회적가치평가 개발	- 사회적가치 측정지표 정교화를 위한 연구 용역	20

나. 사회적기업용자

- 사회적기업 용자사업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쟁 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경영합리화 자금 및 시설개선 자금의 용자를 지원하고 있음.
- 용자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이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용자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용자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이자는 년 2%이고 대출 한도는 기업당 2억원 이내임
- 시는 2014년에 액투스협동조합, 한국IT개발자협동조합 등에 총 1억 7,500만원의 자금을 용자하였음. 이는 기존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이 일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금 융자에 그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후 관리가 요구됨.

다.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은 사회적 금융 또는 사회투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기금을 융자하고 이들 중간지원기관이 사회적기업 등에 재융자하는 방식으로 사회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임.
- 시는 2014년 사단법인 루트임팩트를 비롯해 모두 6개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해 이들 기관에 28억원의 기금을 융자하였음.
-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된 단체는 시가 출연한 기금과 같은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당초 목적으로 삼은 각종 사회투자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약정기간이 끝나는 경우 사회투자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함.
- 여전히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목적실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자없이 시의 기금을 융자해 개별 단체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인에 대한 특별한 혜택으로 비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구조의 구상이나 기금 상환의 안정성 확보,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 본 사업은 건설사회적기업에 토지매입비와 건설비를 저리(2%)로 융자하고 해당 기업이 사회적 목적에 적합한 주택 등을 건설해 판매한 후 융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임.
- 2014년에는 사회적기업인 ‘아이부키’와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40억원을 융자하였으며,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하지만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은 건설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와 이를 통한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사업구조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부지 선정에 따른 제약이 많고, 부동산 경기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큰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금의 융자와 주택건설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사 선정과정에서 기금 상환 능력이나 주택건설능력, 주택임대나 매각과 관련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임.

마. 민간기부 활성화

- 2012년 새롭게 조성된 사회투자기금은 다양한 사회적문제의 해결에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2013년 본격적으로 기금 조성을 시작한 사회투자기금은 민간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기금 설치의 당초 취지에 따라 서울시와 민간이 각각 5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사회적 배려기업 용자 등의 각종 사회적 목적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음.
- 하지만, 서울시가 500억원의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사회적 배려기업 용자 사업을 비롯한 고유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민간기부금 모집실적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서울시가 당초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한 정책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금에 출연해 놓은 예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적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음.

<민간기금 조성 과 중간지원 협력 조직 현황>

(단위:억원)

연도	구분	모금액	민간모금 상세내역
〈 합계 〉		161	- 연도별 : 13년 총 148억, 14년 13억원 - 재원별 : 지정기부 30억, 중간지원협력 131억
'13	지정기부금	30	- 우리은행(30억), 시민기부(4천만원, 총 2건)
	중간지원협력	118	〈7개 기관 118억원〉 - 아이쿱 30억, 에너지나눔과 평화 25억, 신나는 조합 5억, 행복중심생협 3억, (주)쏘카 40억, 북서울신협 10억, (주)해피브릿지 5억

'14	중간지원협력	13	<4개 기관 12.9억원> - 루트임팩트 3.5억, 동작신탁 5억, 신나는 조합 2억, 논골신탁 2억 서대문사람숲 0.4억
-----	--------	----	--

- 특히, 현재까지 모금된 민간기금 중 순수하게 모집한 기부금은 개인이 기부한 4,000만원에 불과하고⁸⁾, 대부분이 시의 기금과 같은 비율로 자금을 투입해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기관의 투자금 성격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시의 기금과 동일한 민간 자금이 사업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기금을 통한 민간 자금의 활용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실제 기금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계상 민간기부금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음.
-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확대와 이를 통한 기부문화의 확산,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목적 달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민간위탁금을 지출(2013년에 11억 7,397만원, 2014년은 12억 5,271만원)하는 현재의 사업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합의가 요구됨.

8) 이와 별도로 우리은행은 30억 원을 (재)한국사회투자에 기탁하였음.

- 장기적으로는 각종 기금 융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통해 민간 위탁금 등 제반 비용에 대한 상계가 가능한 구조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융자 기업에 대한 상환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무엇보다 시의 추가적인 기금 출연없이 기금 고갈을 막고 당초 계획한 원활한 사회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초 계획한 민간 기부금 모집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됨.